

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협회는 EPR대상 플라스틱 중 법적 재활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수익성이 없어 민간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플라스틱 받침접시, 계란난좌, 컵라면 용기 등을 별도로 수거하여 재활용토록 하는 「플라스틱 수거·재활용체계 구축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수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품목의 추가수거로 인해 떨어지는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협회에서 지원함과 아울러 수거된 플라스틱을 집하·선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5군데의 선별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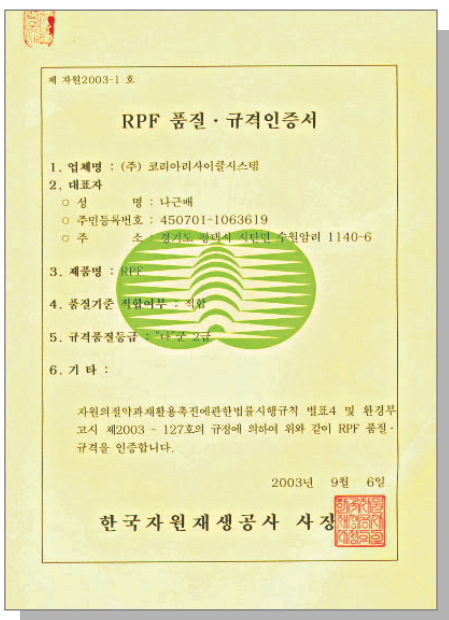
또한 이의 일환으로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 서울 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구리시, 경북 구미시, 포항시를 대상으로 수거대 20개, 수거봉투 1,000장씩을 지급하고, 현재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는 EPR대상 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토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렇

게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은 구청 및 시청의 협조하에 수거되어 인근의 RPF제조업체로 옮겨져 재활용하게 된다.



(주)KRS, RPF 품질·인증 국내 최초 획득

협회 산하 (주)코리아리사이클시스템은 지난 9월 6일 한국재생공사로부터 국내 최초로 고품화연료(RPF)의 품질·규격 인증을 획득하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의 일환으로 협회가 건설한 동 사 RPF제품의 품질·규격이 적합(2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향후 1등급 규격 획득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계속할 계획이다.



(주)KRS 공장, YTN TV 방영

협회는 지난 8월 2일 YTN의 KRS 안성공장 취재요청에 나근배 전무이사가 안내하여 폐플라스틱의 고품화연료로 자원절감효과, RPF규격 기준, 고품화연료화 제조공정, 협회의 역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YTN의 취재내용은 “폐플라스틱이 산업연료로”란 타이틀로 8월3일 방영되었고, YTN홈페이지(www.ytn.co.kr) 사회면에도 게재되었다.

협회 김종석부회장 한양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로

협회 김종석 상근부회장은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임용돼 지난 9월 1일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김 부회장은 환경생태학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며, 이번 강의를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와 이로 인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